

한국 방송산업에서 비정규직 확산의 역사와 배경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

한국 방송의 민영화, 시장화, 디지털화 과정



통제기구로서
독점적
공영방송체계

미디어의 산업화
- 다채널, 민영방송 도입
- 외주제작 (비용절감)
- 노동법 개악(노동유연성)

미디어의 디지털화, 세계화
- 융합 미디어 (SNS, OTT 등) 전환
- 콘텐츠와 마케팅 결합 (수익 확대)
- 프리랜서의 일상화

한국 방송산업의 시기적 구분

시기	법, 제도 변화	기구와 정책	시장
지상파 독과점기 (1961~1987): 정부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63) - 개정 방송법('73) - 언론기본법('80) - 방송광고공사법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설립('61)과 공사화('73) - 민영TBS('64)설립과 준공영 MBC('69)의 새 출발 - 방송윤리위 심의, 검열 ('73) - 언론통폐합, 보도지침('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 경제성장과 TV의 비약적 보급, 지상파 3각 경쟁 - 80년대 칼라TV 보급 - 시청료거부운동
다채널 도입기 (1987~1997): 방송 민주화와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방송법('87) - 노동법 개악('97) - 미디어법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노조 설립('88)과 파업 - 민영SBS('91)와 지역민방 설립 -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91) - 상업 케이블TV 출범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아카데미 등 인력양성 기관 활성화 - 외주비율 점증
다매체 경쟁기 (1998~2011): 시장화, 사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미디어법('00) - 미디어법 개악('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케이블 교차소유 ('99) - 디지털 위성TV('02), DMB, IPTV 출범 ('05) - 종편 출범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종편간, 공영-민영간 비대칭 규제 - 방송광고시장 경쟁 격화 - 외주비율 급증
플랫폼 융합기 (2012~현재): 포스트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12) - 넷플릭스 국내 서비스 시작 ('16) - MCN채널 다이아 TV개국('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2.0 글로벌 확산 - 글로벌 OTT 국내 진출 - MCN,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장 - 전통적 시청 패턴 해체

탈규제·민영화 시대의 방송 생산구조, 외주제작

- 외주제작 연혁

1. 1990. 8 ‘새 방송법’에 따라 매주 전체방송시간 20% 내에서 외주비율 고시 (시행령 29-3-2)
목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수요 증가, 제작 효율성·합리성 확보 위해 독립제작 시장 조성
 - 1991. 도입. 전체 방송시간 3%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고시, 매년 3%씩 증가 → 1999. 18%로 증가
2. 2000. ‘통합미디어법’에 따라, 외주제작비율 매년 2%씩 늘려 40%까지 높이도록 규정
 - IMF외환 위기 직후, 비용 대폭 절감 필요. 외주사 대폭 증가, 시장 규모는 그대로 → 영세화
3. 2010년대. 대략 30~40% 이상 비율. 2016년 개정 편성고시에 따르면, 의무편성 비율 규제는 KBS1 19%, KBS2 35%, MBC & SBS 30%로 정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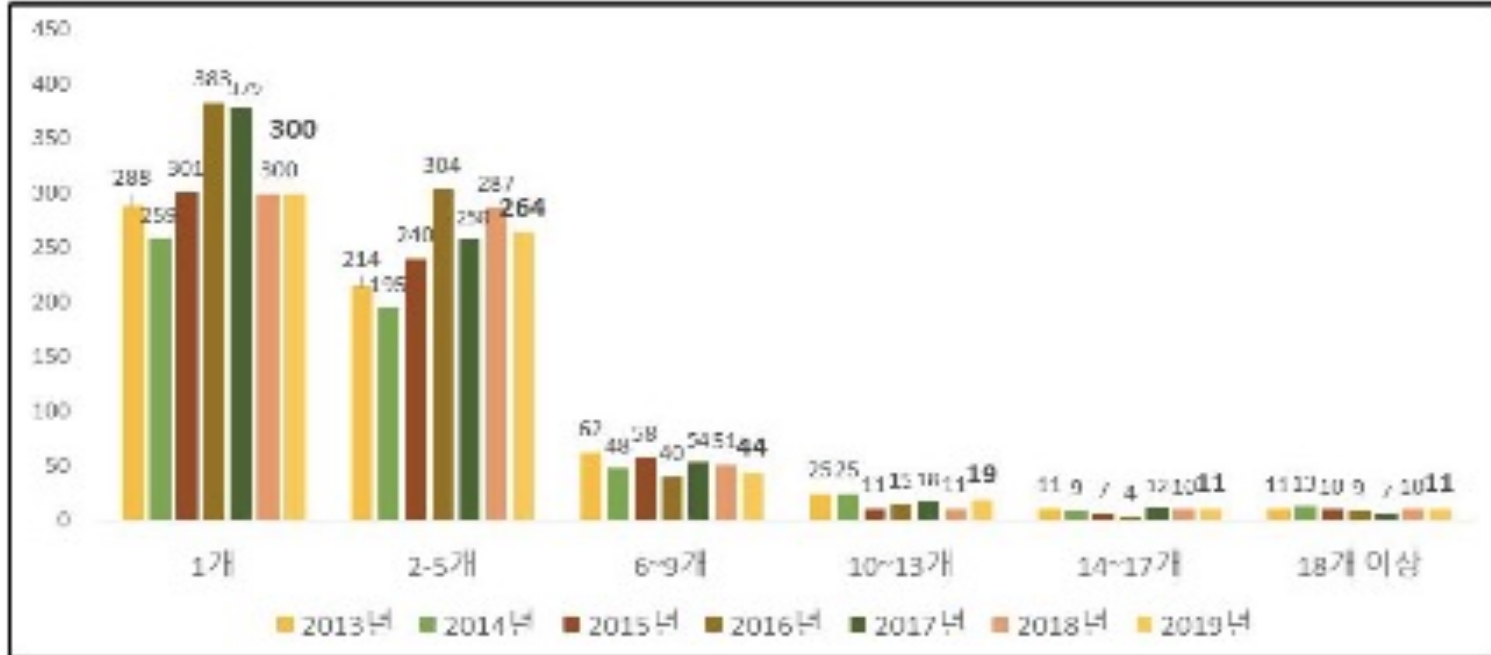
➔ 외주제작의 양적 성장은 저비용, 저임금 구조에 기인

국내 외주제작사 현황

<2020 방송영상산업백서>

- 매출 30억 미만: 80.6% (530개)
- 매출 30~800억: 19.0% (125개)
- 매출액 800억 이상은 단 3개뿐

연도	1억 원 미만 사업체	1~10억 원 미만 사업체	10~30억 원 미만 사업체	30~100억 원 미만 사업체	100~800억 원 미만 사업체	800억 원 이상	합계
2017년	237 (37.6)	205 (32.5)	100 (15.8)	54 (8.6)	34 (5.4)	1 (0.2)	631 (100.0)
2018년	96 (13.2)	376 (51.6)	109 (15.0)	98 (13.4)	47 (6.5)	2 (0.3)	728 (100.0)
2019년	73 (11.1)	300 (45.6)	157 (23.9)	71 (10.8)	54 (8.2)	3 (0.5)	658 (100.0)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

- 연 1개 납품: 46.2% (330개)
- 연 5개 이하: 86.9% (564개)
- 연 10개 이상: 6.3% (41개)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원시 데이터 재구성

지상파 방송 3사의 TV외주제작 편성시간 비중

- 의무편성시간은
 - KBS1 19%
 - KBS2 35%
 - MBC · SBS 30%
- 실제편성시간은
각 사 별로 평균
10% 이상 상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	KBS 1TV	25.51	35.94	33.02	25.12	29.22	27.64	24.53
	KBS 2TV	51.47	63.81	62.58	54.40	56.42	54.02	48.73
	KBS 합계	37.36	48.89	46.72	38.98	42.16	40.21	36.07
	MBC본사	50.31	44.92	49.45	48.76	54.55	46.55	47.74
	SBS	54.14	54.40	48.60	45.86	42.79	39.55	41.88
지상파방송3사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비중		45.00	49.13	47.89	43.09	45.34	41.66	40.29
지상파방송3사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시간		890,669	964,913	926,351	826,173	862,198	784,273	760,738
지상파방송3사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1,979,095	1,963,933	1,934,164	1,917,219	1,901,464	1,882,489	1,888,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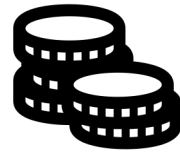
주: 1) 각 채널의 전체 TV프로그램 편성시간에 대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비중

2)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은 자체제작프로그램(자체제작+공동제작), 외주제작프로그램(순수 외주제작+특수관계사 외주제작), 구매 방송프로그램(국내물 구매+국외물 구매), 수증계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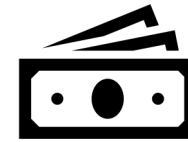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원시 데이터 각 연도

불평등·불공정 외주제작 관행과 인력구조 왜곡

부분외주
디센티브
수정요구
½ 표준제작비



다시보기
협찬금
저작권
표준제작비



외주제작사 제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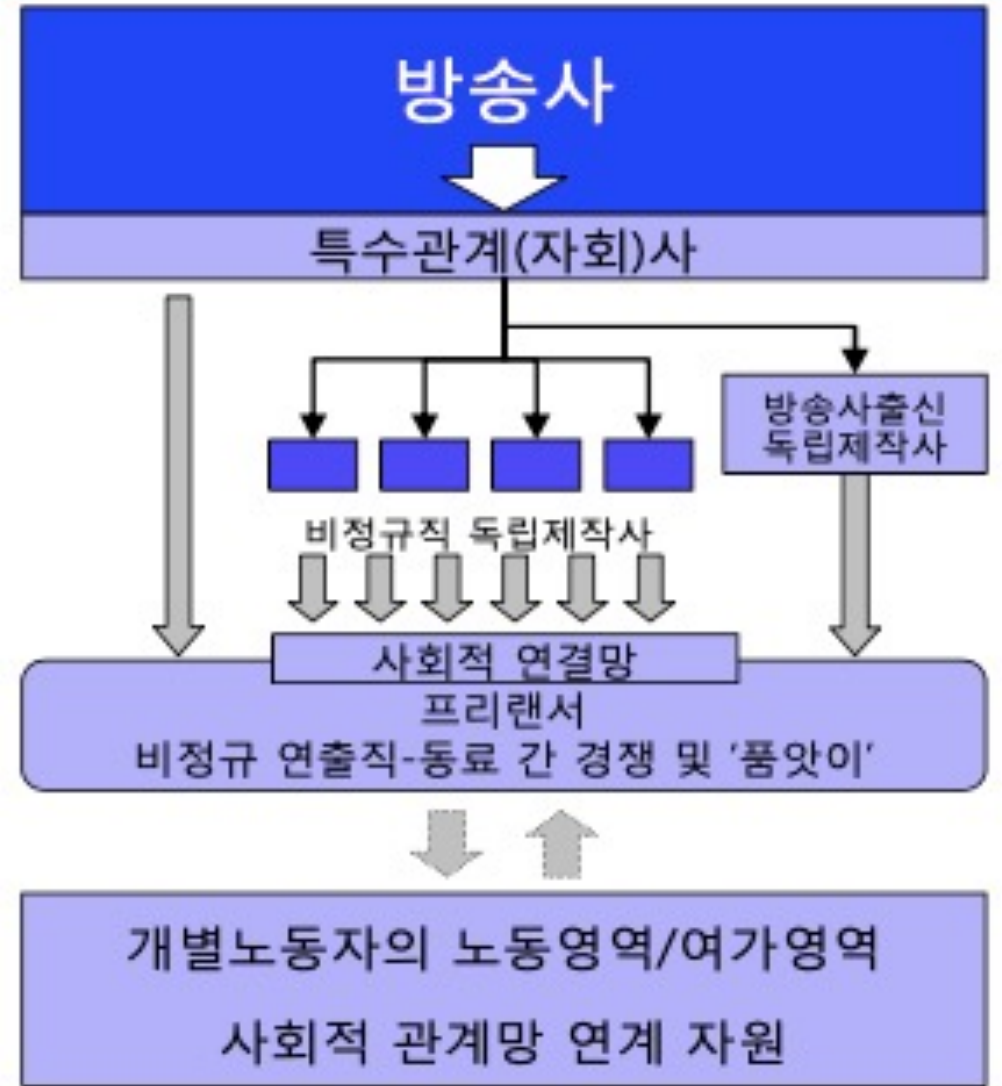
연출	작가	
조연출	자료조사	카메라감독
카메라임차	특수장비	편집
종편	음향/음악	스튜디오
차량임대/기사	진행비	
통신비	임대료	행정인력비

방송국 본사 제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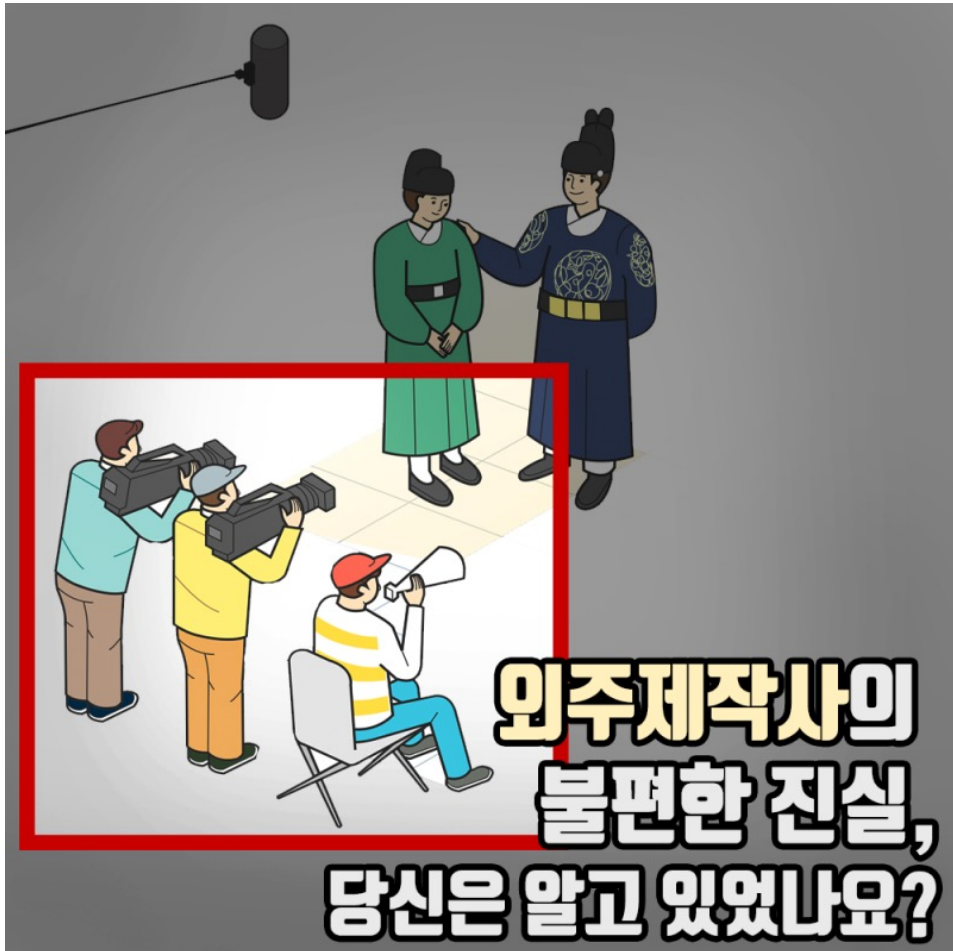
		작가
조연출	자료조사	
		진행비

방송제작의 재하청구조

- 모든 전횡의 근원은 위계적·종속적 노동 구조
- 방송사-자회사-외주사-협력업체 등이 원·하청 관계
→ 방송사 내외부의 노동시장도 소속, 직종, 업무에 따라 위계 형성.
- 방송은 생산요소간의 수평적 결합 통해 질 높은 콘텐츠 가능. 현실에서는 권력 우위의 방송사가 외주사 간의 과당 경쟁을 이용, 부당한 강요를 일삼는 구조.
-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법 도입
→ 방송산업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 비정규직 양산
-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화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장



방송외주제작 거래질서 개선



- 2017 EBS 박환성•김광일 사망 사건 계기
- 2017. 12.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 2018 '방송편성고시' 개정: 외주사가 저작권 갖는 경우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에 가중치 부여
- '방송평가규칙' 개정: 방송스태프의 상해 •여행자 보험 가입, 상생합의체 운영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
- 2019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가이드라인' 권고

- 실효성 없음. 불공정거래 개선에 초점
- 비정규직 제작 인력의 노동인권 제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 필요

방송노동자의 목소리 높이기



- 2019년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 (지상파-제작사협회-언론노조-희망연대 스태프지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인건비 관련 협의 여전히 공전 중
- 2021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 방송연기자노조, 캐스팅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
- 방송작가와 출판노동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사용자가 사용자임을 알게 해야 (노동자성 무시, 회피)
 - 단결을 통한 집단적 교섭력 확보
 - 연대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설득
- 제작 환경의 안전성 강화•인권보호
 - 장시간 노동 방지 매뉴얼, 연장 근로 한도 제정
 -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제고 위한 방안
 - 표준화된 용역 단가•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사회보험 적용
- 미디어노동 실태 감시•감독•중재 기구 설치 촉구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직종을 뛰어넘는 단결, 사업장을 넘나드는 연대
- 비정규직·프리랜서 조직의 산별적 접근

- 작은 것부터... '소속감'
 - 부산·경남 미디어노동자들의 온라인 사랑방
(경조사, 구인구직, 중고 장비 거래장터 등)
 - 칭찬하고 격려하기 '부경지역방송대상'
(작가가 뽑는 좋은 PD상, 스태프상, 리포터상...)
 - 지역의 공공자원 활용하기
(각종 청년 지원, 커뮤니티 지원 활용, 공간과 자원 마련)
 - 정기 모임 (책, 술, 음악, 영화...)
-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작당모의... 투쟁, 교섭

- 삶의 안전장치는 내 곁의 동지와 함께 걷는 것

